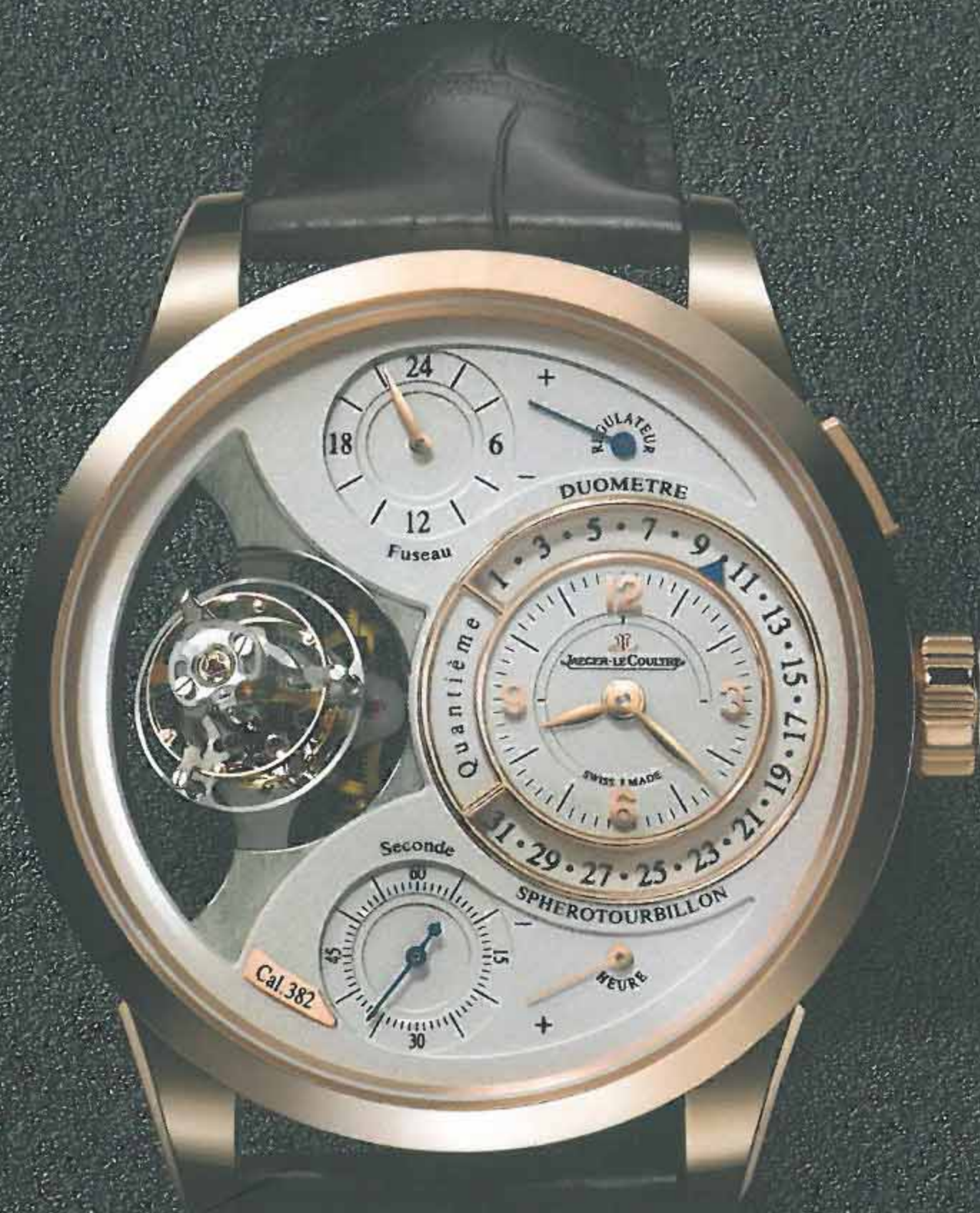


LEADER OF  
A PREMIER LIFESTYLE  
SINCE 1990



WHY JUST BE PRECISE WHEN YOU CAN BE THE MOST PRECISE?



  
JAEGER-LECOULTRE

[www.jaeger-lecoultre.com](http://www.jaeger-lecoultre.com)

Noblesse

11

ABC CERTIFIED  
KOREA AUDIT BUREAU OF  
CIRCULATIONS

국내 유일의 발행부수 승인 멤버십 잡지



# Walking in Copenhagen

설치, 비디오,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개념 접근을 시도하는 현대미술 작가 김소라가 9월 20일부터 11월 17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의 쿤스탈 샬로텐보리 갤러리에서 개인전 〈Three Foot Walking〉을 개최한다. 1997년 뉴욕 아트 오마이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기점으로 한국 화단에 이름을 알린 김소라는 이후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국제적 명성을 쌓아왔다. 이번 전시는 김소라 작가가 지난해에 아트선재센터에서 선보인 〈Abstract Walking〉의 연장선상에 있다. 인간의 행동 중 가장 기본인 걷기를 관찰하고, 그 습관과 형식을 해석한 후 퍼포먼스로 표현한 것이 이번 전시의 특징. 언뜻 난해해 보이지만, 볼수록 깊이 빠져드는 매력이다. 구구절절한 설명이 아닌 직관적 통찰로 관람객과 소통하고자 하는 그녀의 작품에 흠뻑 빠져보는 건 어떨까?



김소라 작가 개인전 'Three Foot Walking'의 한 장면

## 런던에 가야 하는 2가지 이유

지난 9월 28일, 서펜타인 갤러리에서 5분 남짓 떨어진 곳에 이라크 건축가 지하 하디드의 야심작 '서펜타인 새클러 갤러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파도의 물결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외관은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서펜타인 새클러 갤러리에서 첫 번째 전시회를 여는 영광은 신인 조각가 아드리안 바자르 로하스에게 돌아갔다. 그는 건축가, 엔지니어와 함께 한 팀을 이루어 일하며 마치 조물주가 흙으로 만물을 빚어내듯 철축으로 대규모 조각품을 만드는 게 특징이다. 2011년 제54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아르헨티나 파빌리온'으로 유명해진 그는 이번 전시 〈Today We Reboot The Planet〉에서 공상과학, 만화책, 대중음악과 양자역학 등에 상상력을 더해 조각으로 풀어냈다. 고대와 상상 속 미래를 오가는 듯한 바자르 로하스의 작품을 새로운 공간에서 감상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는 11월 10일까지만 주어지니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1,2 지하 하디드가 설계한 서펜타인 새클러 갤러리의 외관  
3 아드리안 바자르 로하스 작 'Today We Reboot The Planet' 전시장 입구

## 뉴욕의 밤은 따뜻했다.

지난 9월 25일, 뉴욕 치프리니 42번가에 싱어송라이터이자 'We Are Family Foundation(WAFF)' 설립자인 나일 로저스의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졌다. 스위스 시계 브랜드 제라드 페리고와 환경운동가 수전 & 데이비드 록펠러 부부가 WAFF를 후원하기 위한 이벤트 '체인징 워치'를 펼친 것. 이날 수전 록펠러와 제라드 페리고가 함께 디자인한 시계 '씨 호크 미션 오브 머메이드' 모델을 전시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제라드 페리고는 현장에서 경매를 열어 그 수익금을 전액 기부했는데, 더 나은 환경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전 세계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 뜻깊은 행사에는 제라드 페리고의 CEO 미셸 소피스티를 비롯해 사회운동가 아만다 허스트, 모델 알무데나 페르난데스, 배우 조 챔퍼 등 수많은 유명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 베이징에서 만나는 3인 3색 전시

베이징 798 예술 거리의 울렌스 현대미술 센터(UCCA)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가을 전시가 한창이다. 개인전을 선보이는 3명의 아티스트는 왕커핑, 티노 세갈, 그리고 타린 사이먼이다. 중국 최초의 현대 조각가 왕커핑은 피노키오에게 숨결을 불어넣은 제페토처럼 나무조각에 자신의 혼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이번 전시에서 공개한 그의 작품 50점을 통해 왕커핑의 35년 작품사를 엿볼 수 있다. 티노 세갈의 작품은 내가 작품인지, 작품이 나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으로 침투한다. 움직임, 언어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모티브로 한 그의 작품은 평범한 일상에서 찾아낸 결코 평범하지 않은 가치와 의미를 경험하게 한다. 비밀에 부친 진실의 순간을 담아내는 작가 타린 사이먼. 그녀는 4년간 전 세계를

왕커핑 작 'Cry Out' 돌며 만나고 경험한 18개 혈통과 그들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풀어냈다. 아시아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각각 센트럴 갤러리와 그레이트홀 그리고 롱 갤러리에서 9월 27일부터 2014년 1월 5일까지 진행하니 꼭 방문해보자.



왕커핑 작 'Betrayal'



티노 세갈 작 'Situations'

